

# 조선조와 모더니즘의 가구디자인 비교연구\*1

- 사상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

김진수\*2

## A Comparative Study on Furniture Design of Chosun Dynasty & Modernism\*1

- Focused on Thought & Design -

Gun-soo Kim\*2

### ABSTRACT

Korea has a dark age in terms of culture in the last 20th century. Korea had been struggling between the Great Powers of the world in the imperialism and had sacrifice to keep our own culture itself. Japanese imperialist's a invasion, culture liquidation by Japan, Independence from Japan, Korean war and Influence by US are major bitter historical affair after close of Chosun Dynas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refore Korea couldn't stay in the center of world cultural core parts and was degraded as cultural consumption country which was provided oversea culture by other countries. Then Korea couldn't develop our unique traditional idea and culture. In the meantime there are both extreme phenomena; one is expulsion of other cultures absolutely and the other is only following western culture unconditionally like trimming policy in the end of colony age. These discreet and unfiltered western culture had been influenced Korea culture over the wide range strongly and resulted in cultural colony situation to produce western imitation culture without philosophy and traditional spirit. Even though Korea has met opportunity in the culture, we called "Han Trend", no formation of own culture is main reason for psychological panic. Korea furniture design is one of parts of lost of tradition culture and typical parts in reproducing western imitation culture. As a result furniture industry's major reason for loss value as exporting industr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result in most of the furniture products without our unique identity. This situation become more deepen unfortunately.

This report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gn with global competition capability and cultural identity to boost Korean furniture design industry by comparing, analyzing and speculating between design of Chosun dynasty and philosophy of modernism in western.

**Keywords:** Furniture, design, culture, chosun dynasty, modernism

---

\*1. 논문접수 : 2006. 12. 15.

\*2.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가구디자인전공, Major in Furniture Design,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326, Ongnyong-dong, Gongju-si Chungnam, 314-712, Korea

## 1. 서론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는 한류라는 명칭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지로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세계 IT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 휴대폰, 디지털TV 등을 비롯한 디지털 가전제품과 현대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선박 등을 수출하면서 첨단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의 산업인 BT산업에서도 그 선두권에 들어섬으로써 바야흐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세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살아왔으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과 문화말살, 해방, 전쟁,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 등 조선의 몰락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힘든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적 흐름에서는 변방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자체적인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받아들여진 문화로 우리의 문화를 가득 채우고 추종하며, 심지어는 전통적인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상실케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타 문화는 무조건 배척하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서구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주의 등의 식민지적 현상까지 보여 왔다. 그러한 현상은 무분별하고 여과 없이 침투한 서구의 문화사조가 우리나라의 문화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끼쳐, 현재까지 철학과 전통정신이 희박한 서구의 아류문화를 생산하는 식민지적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한류라는 문화적인 호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는 것은 자체적인 문화의 형성이 되지 못한 것과 전략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구디자인 분야는 리빙 스타일의 변화로 가장 많은 전통의 상실을 가져온 분야이며, 서구 아류문화를 재현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볼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심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가구디자인과 서구 모더니즘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고, 21세기 우리나라 가구디자인을 새로운 문화와 사상적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의 장점과 아이덴티티를 살린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 연구목적

20세기에 들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기반이 되는 사상적 체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붕괴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전쟁의 혼란과 미국의 영향력하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문물의 무차별적인 유입이 이루어 졌다. 이후 의, 식, 주 등의 우리문화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상적 체계를 정립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왕조의 붕괴이후 14세기말 조선의 건국은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우리고유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조선의 가구공예분야는 그 시대의 공예문화의 중심에서 실생활에 편리하고 주거기능에 맞는 기능적인 가구가 주류

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컨대 사랑방의 대표적인 가구인 사방탁자와 서안, 경상, 문갑 등은 생산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절제된 디자인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재료의 사용으로 현재까지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처럼 조선조는 신홍 정치세력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선비사상을 기반으로 절제된 아름다움, 자연에 순응하는 미의식, 소박성, 기능성 등의 사회 철학적 사상계를 반영한 가구들이 양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가구디자인은 조선고유의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말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서구유럽에서는 도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개혁적인 사상이 싹트고 있었다. 이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문화 혁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모더니즘의 시작이었다. 모더니즘은 가구디자인에 있어 장식을 배제한 기능적이고 기계미학적인 현대적 디자인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으며, 20세기말에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서구의 모더니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사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혼란기를 맞이하였고 세계 문화흐름의 대열에서 벗어나 서구문화사조의 소비국으로 전락하며, 문화사조에 있어서 변방의 위치에 놓이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통성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서구의 문화 사조를 좇는 우를 범하게 되었으며 우리고유의 사상적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화전반에 걸쳐 혼란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구공예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국의 현대화라는 명제 하에 주거문화와 함께 급격하게 서구화가 이루어 졌으며, 전통과의 단절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21세기 들어서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문화적 정체성이 결여된 가구디자인들이 양산되고 수입되어 우리문화의 정통성과 창조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가구분야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과는 멀어지고 무분별한 카피디자인이 난무하는 총체적 난국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동함으로써 낮은 인건비의 중국 가구산업의 성장으로 생산위주의 국내가구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선조의 사회철학이 담긴 전통목가구와 20세기 서구의 모더니즘 디자인을 비교하고 고찰하여, 21세기 의 가장 큰 화두인 컴퓨터 디지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우리 주거문화와 새로운 문화흐름을 연구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가구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고려 말의 개혁세력인 신진사대부로부터 발전한 조선의 선비정신과 자연주의, 기능주의 철학을 19세기말, 서구유럽의 혁명적 엘리트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현재 우리문화와의 관계성과 공통점을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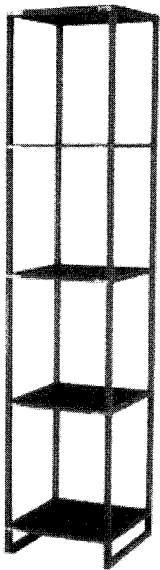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비정신과 조선조 가구의 기능적 측면과 미의식, 서구 모더니즘의 주된 철학인 인물, 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결론에서는 조선조와 서구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사상과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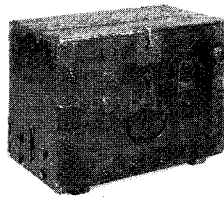
## 2. 조선조와 모더니즘 가구디자인 특징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사상적 체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시초가 된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원나라의 문화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신진사대부의 등장은 시대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문화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학문적 기초는 중국의 성리학에 있었다고 하지만 단초기에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했을 뿐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고유의 사상계가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에는 실학사상으로 발전하여 현대의 사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모더니즘이 엘리트집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 개혁적인 철학으로 싹트기 시작한 상황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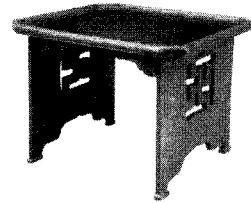
조선조의 목가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모더니즘 역시 건축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건축과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공통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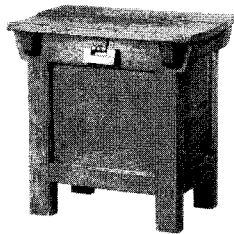
<Fig. 1> The four side table in guest-room,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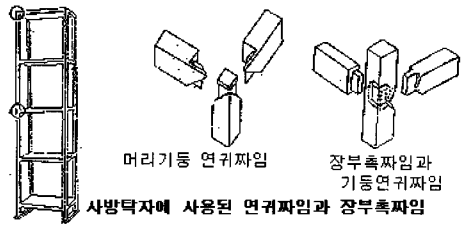
<Fig. 2> Clothes rack, Chosun dynasty.



<Fig. 3> Very functional small table, Chosun dynasty



<Fig. 4> Grain-chest, Chosun dynasty



<Fig. 5> A complex structure of traditional furniture design, Chosun dynasty

### 2-1 조선조 가구디자인

우리나라의 자연은 산지가 많아 수종이 다양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나뭇결이 아름답다. 또한 한옥의 구조는 천장이 낮고 방의 넓이가 좁은 가옥이란 점과, 온돌구조의 방바닥에 앉는 평좌식생활의 영향을 받아,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구의 크기가 정해졌다. 방바닥에 앉았을 때 중압감

을 느끼지 않도록 아무리 큰 가구라 할지라도 사람의 키를 넘지 않으며 이동하기 쉬운 알맞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조 목가구를 보면 설사 같은 이층장이더라도 그 크기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가구를 제작할 때 장식이나 허세를 위해 장식을 만들지 않고 용도와 실용성 위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생활에 있어서도 입체제단의 양복과는 달리 평면제단의 한복은 접어서 보관해야 함으로 가구가 클 필요가 없었다<Fig. 2>.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를 구별하여 남자들이 사용하는 사랑방가구는 <Fig. 1>의 사방탁자에서 보듯이 장식이 적고 기능적이며, 선비에 필요한 문방사우 중심의 가구가 발달했으며, 여성의 공간인 안방의 가구는 사랑방가구보다는 보다 화려하고 장식이 첨가되었다.

또한 조선조의 미술·공예분야에서도 보아온 한국적 조형기질인 “무기교의 기교” “계획적인 비정제” 등의 측면은 목가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마감처리에 있어서 나무의 목리를 그대로 살리거나 한다가나, 장식이나 꾸밈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경향<Fig. 1><Fig. 4> 등은 우리나라 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결함은 그 이면에 숨겨진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짜임<Fig. 5>과 단아한 비례감각<Fig. 3> 등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바로 이점이 조선조 가구의 독특한 장점으로 주목 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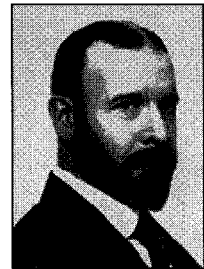
## 2-2 모더니즘 가구디자인



<Fig. 6> Le Corbusier (1887~1965).



<Fig. 7> Adolf Loos (1870~1933).



<Fig. 8> Louis Sullivan (1856~1924).

“모던(Modern)”은 근대적, 현대적이라는 의미로, 20세기초엽부터 서구유럽에서 시작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문화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단순히 시대적 구분만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더니즘을 주도한 것은 도시의 엘리트 계층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성향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했는데,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추구했으며, 편집증적인 장인정신으로 타인이 따라 할 수 없는 어려운 구조를 연구했다. 모더니즘은 디자인분야에서 기능주의로 발전하여 “건축은 살기위한 기계다”현대디자인의 이론을 확립한 르포르뷔제1)<Fig. 6>와 “장식은 죄악이다”라고

1) Charles-Edouard Jeanneret, widely known as Le Corbusier (October 6, 1887 - August 27, 1965), was a French-Swiss born architect, famous for his contributions to what is now called modernism, or the International Style. He was a pioneer in theoretical studies of modern design and was dedicated to providing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the residents of crowded cities. His career spanned five decades, with iconic buildings constructed

주장한 아돌프로스<sup>2)</sup><Fig. 7>,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고 주장한 루이스 설리번<sup>3)</sup><Fig. 8> 등에 의해 모더니즘이 비로소 건축 및 가구디자인으로 시작화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문화 활동들은 세계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빠르게 글로벌화 되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등장으로 성장한 자본주의 성립과 이러한 국면의 근본적인 재인식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제도변화가 가져온 외적 현실의 변화와 주체적 조건의 변화를 근본적인 새로움으로 포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종래의 사상을 극복 쇄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모더니즘은 제 1차 세계대전에 앞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적어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더니즘이 발전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전쟁 중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을 뿐, 이 전쟁은 이 테올로기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더니즘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류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성의 가치관이나 도덕을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린 이 전쟁은 오히려 모더니즘이 성장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적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부터 싹트기 시작했지만, 제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이는 1920년대 초엽을 중심으로 서구의 미술, 문학 등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위대한 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잘 나타내 준다. 또한 모더니즘은 바우하우스를 태동하여 현대디자인의 방법론과 디자인교육의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가구디자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서 언급한 건축가들에 의해 현대가구디자인의 그 토대가 마련됐다.

### 3. 조선조와 모더니즘 가구디자인 비교

#### 3-1 사상적 측면 비교

15세기는 조선의 공예산업은 가구공예를 중심으로 고려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띠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상감청자를 비롯하여 나전칠기의 화려함이 기능적이고 정제된 미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컨대 <Fig. 9>와<Fig. 10>에서 보듯이 고려시대 공예의 화려함은 다분히 외세에 의해 강요되어진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당대의 중국의 지배세력인 원나라가 문화적 정통성과 위대함을 확보하기위해 건축을 비롯하여 가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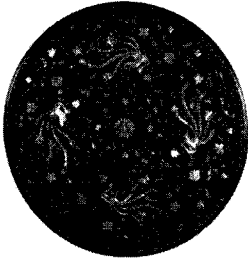
---

across central Europe, India, Russia, and one structure each in North and South America. He was also an urban planner, painter, sculptor, writer and modern furniture designer.

2) Adolf Loos (b. Brunn, Czechoslovakia 1870; d. 1933) Adolf Loos was born in Brunn, Czechoslovakia in 1870. His studies at the Royal and Imperial State Technical College in Rechenberg, Bohemia were cut short by a two year stint in the army. After he attended the College of Technology in Dresden for three years, he worked in the U.S. as a mason, a floor-layer and a dish-washer. He eventually obtained a job with the architect Carl Mayreder and in 1897 he established his own practice. He taught for several years throughout Europe, but returned to practice in Vienna in 1928.

3) Louis Henry (Henri) Sullivan (September 3, 1856 - April 14, 1924) was an American architect, called the “father of modernism”. He is considered by many as the creator of the modern skyscraper, was an influential architect and critic of the Chicago School, and was a mentor to Frank Lloyd W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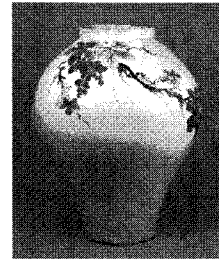
자기 등에 과도한 장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 하에서 나전을 비롯한 공예품들을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충선왕<sup>4)</sup>과 충숙왕<sup>5)</sup>이 집권한 14세기 전반은 원의 세력에 배경을 둔 권문세족에 의해 다스려지던 시기였다. 이 시기 도자의 모습을 보면 기형에 있어 측면이 편편한 광구호 등이 많이 제작되며 접시와 대접 내에 간지(干支)가 시문되기 시작한다. 원의 영향으로 연주문, 파도문, 용문, 쌍봉문, 보상당초문, 여의주문, 어문 등이 유행하며, 당초문이 일부 직선화, 단순화하여 초화문이 진행되는 시기이다<sup>6)</sup>.



<Fig. 9>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Goryeo dynasty.



<Fig. 10> Celadon  
porcelain, Goryeo  
dynasty.



<Fig. 11> White  
porcelain, Chosun  
dynasty.

현재는 안타깝게 고려시대 가구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분벽화나 현존하는 가구의 역할을 했던 함, 상자 등에서 그 면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의 몰락과 더불어 새로운 개혁세력인 신진사대부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되어 조선조에 들어서는 고려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미의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분청사기를 거쳐 백자<Fig. 14>로 태어난 우리나라의 자기는 소박하고 기능적이며, 절제된 미의식이

서구의 모더니즘적인 미의식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역시 신진사대부의 사상과 맞아 떨어져 절제된 미의식과, 기능인 디자인, 복잡한 결구법의 사용 등이 서구의 모더니즘적 사고와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 나타나 20세기 정신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간은 17세기 유럽의 이성주의로부터 18세기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거치는 동안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대표적인 시대정신으로 성장했다. 또한 모더니즘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세기 마르크스<sup>7)</sup>의 역사적 유물론이다.

4) King Chung-seon, 26th King, Goryeo Dynasty

5) King Chung-suk, 26th King, Goryeo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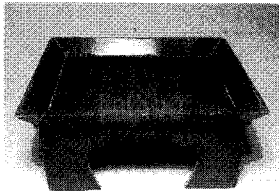
6) Naver Blog information - Songam Gallery. Korea

7) Karl Heinrich Marx (May 5, 1818, Trier, Germany - March 14, 1883, London) was a German philosopher, political economist, and revolutionary. Marx addressed a wide range of issues; he is most famous for his analysis of history, summed up in the opening line of the introduction to the Communist Manifesto (1848): "The history of all hitherto existing societ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s." Marx believed that the capitalism would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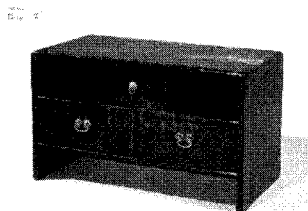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성향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의 역사와 문화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완전한 예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그 구조는 다분히 아카데미한 엘리트 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넷째, 편집증적일 정도로 깊고 어려운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련되면서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에는 사회의 흐름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초기에 모더니즘은 젊은 지식인들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세력들은 '도시중심'의 '아방가르드 엘리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8)</sup> 이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의 등장과 그들의 개혁적인 사상을 보면 조선조의 초기사상과 모더니즘의 초기사상이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 3-2 디자인적 측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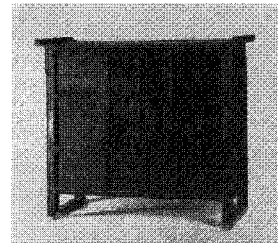
조선의 사상계는 당대 엘리트 집단인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끌어 왔다.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성리학은 원초성리학보다 사대부들에 의해서 더욱 깊게 발전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대두되는 실학사상과 북학파의 사상은 서구의 과학적, 이성적 태도와 크게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실학사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변혁의 필요성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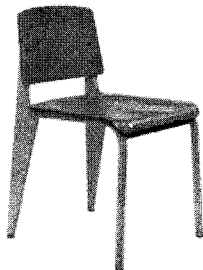
<Fig. 12> Square tray,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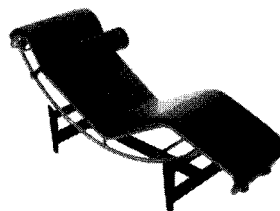
<Fig. 13> Bookholder,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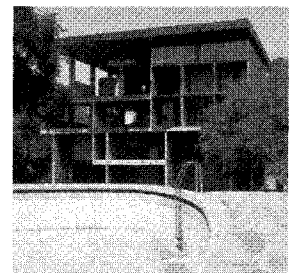
<Fig. 14> Sideboard, Chosun dynasty.



<Fig. 15> Chair, Jean Prouvé.



<Fig. 16> Easy chair, Le Corbusier



<Fig. 17> Modernism architecture, Le Corbusier.

replaced by communism.

8) Cody Choi, 20th Century Culture Map, Ahn Graphics, 2006, p.24, p.26, p.31



물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서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학문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실학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성리학의 비실용적인 폐해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초기 서구모더니즘의 사상계가 작동하였던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2><Fig. 13>< Fig. 14>의 조선조 가구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기능주의 디자인은 모더니즘 디자인을 주창한 장푸르베<sup>9)</sup>의 의자디자인<Fig. 15>, 르꼬르뷔제의 가구디자인<Fig. 16>과 모더니즘 건축<Fig. 17>에서 나타난 기능주의 디자인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조의 디자인적 사고가 서구의 모더니즘정신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사상적 배경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조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발달은 고려 말 불교의 폐단과 원나라의 지배 하에서 벗어난 신진사대부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 말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생활용품 대량공급의 필요성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장식을 배제한 디자인의 단순화와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백자의 탄생과 조선조 가구디자인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구의 모더니즘 디자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과 대량생산의 필요성, 문화의 변혁과정에서 나타난 엘리트의 과학적 태도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서 기능주의 디자인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더니즘과 함께 모더니티가 동시에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조와 모더니즘의 가구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mon point with Chosun dynasty & modernism design

	조선조 가구디자인	모더니즘 가구디자인
장식적측면	장식을 절제함	장식을 죄악시함
기능적측면	기능에 충실함	기능을 강조함
사상적주체	선비사상과 민본주의	엘리트 정신과 민주주의
제작주체	장인정신에 입각한 정교한 구조	과학적 구조와 장인정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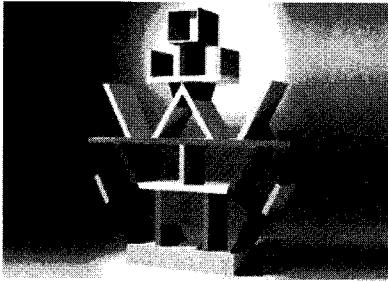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후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사상체계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한국전쟁이후 물리적인 현대화는 성공했지만 사상에 있어 현대화 과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한 여파는 고도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사상적 부재를 겪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유럽의 모더니즘은 이후 프랑스에서 시작한 구조주의<sup>10)</sup>, 미국에서 꽃핀 포스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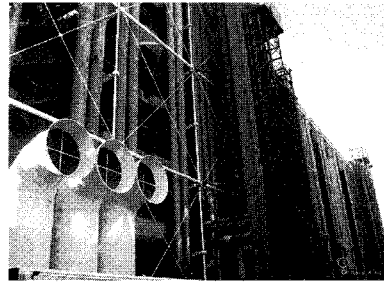
9) Jean Prouvé (1901-1984), French furniture designer and architect, grew up surrounded by the ideals and energy of his father Victor's art collective, "l'École de Nancy." This school came together with the intent to make art readily accessible, to forge a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industry, and to articulate a link between art and social consciousness. Although Jean Prouvé shaped his public image around the idea that he was not married to a specific aesthetic, the tenets of "l'École de Nancy" were certainly a powerful influence on his body of work. "I was raised," Prouvé says, "in a world of artists and scholars, a world which nourished my mind."

더니즘<sup>11)</sup><Fig. 18>을 비롯하여 후기구조주의<sup>12)</sup>와 해체주의<sup>13)</sup><Fig. 19> 등으로 깊은 사상적 토대를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사상계와 디자인, 예술, 문화를 이끄는 힘을 만들었다. 또한 일본은 독자적인 모더니즘을 발전시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문화정체성은 <Fig. 18>의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과 <Fig. 19>의 해체주의 건축디자인은 탄생시켰으며, 이는 깊은 사상과 철학적 토대에서 발현된 역사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8> Post-modernism furniture, Ettore Sottsass.



<Fig. 19> Deconstruction architecture, Renzo Piano.

#### 4. 결론

조선의 몰락이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미국의 문화적 식민지화로 사상의 부재와 문화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약 100년 동안 우리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

- 
- 10) Structuralism is best known as a theory in the humanities. However, it may more accurately be described as an approach in academic disciplines in general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fundamental principal elements in language, literature, and other fields upon which some higher mental, linguistic, social, or cultural "structures" and "structural networks" are drawn. Through these networks meaning is produced within a particular person, system, or culture. Structuralism as a field of academic interest began around 1958 and peaked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 11) Post-modernism is an idea that has been extremely controversial and difficult to define among scholars, intellectuals, and historians, because the term implies to many that the modern historical period has passed. Nevertheless, most agree that postmodern ideas have influenced philosophy, art, critical theory, literature, architecture, design, marketing/business,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culture since the late 20th century.
  - 12) Post-structuralism is a broad historical description of intellectual developments in Continental Philosophy and Critical Theory originating in France in the 1960s. The prefix "post" refers to the fact that many contributors such as Jacques Derrida, Michel Foucault, and Julia Kristeva were highly critical of structuralism. In direct contrast to structuralism's claims of culturally independent meaning, post-structuralists typically view culture as integral to meaning.
  - 13) Deconstruction: A school of philosophy that originated in France in the late 1960s, has had an enormous impact on Anglo-American criticism. Largely the creation of its chief proponent Jacques Derrida, deconstruction upends the Western metaphysical tradition. It represents a complex response to a variety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movements of the 20th century, most notably Husserlian phenomenology, Saussurean and French structuralism, and Freudian and Lacanian psychoanalysis.

고 서구의 모더니즘 및 그 이후의 사상계를 추종하여 의식주 전반에 걸쳐 서구의 아류문화를 양산하게 된다. 이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에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상실해 나가는 과정이 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사상계를 비롯하여 문학, 음악, 공예 등의 예술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산업의 현대화에는 성공하지만 사상계의 탈근대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의 소비국으로써 전락하고 만다. 이는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서구문화의 물이해에서 오는 혼란으로 이어진다.

주거문화의 대표적 산물인 건축과 가구문화에도 우리나라의 전통과는 관계없는 서구문화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구시장은 전통과 단절된 서구 선진국들의 카피디자인들이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문화사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몰락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로 도약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인터넷과 유비쿼터스<sup>14)</sup>,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거의 동시대에서 출발하는 문화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가 자본력을 앞세운 경제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문화산업은 서구의 그것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통찰한 새로운 디자인 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 서구의 문화현상을 뒤쫓아 그들의 아류디자인을 생산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인도의 철학자 애쉬스 낸디<sup>15)</sup>의 “탈식민지 이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문화의 키워드를 찾아내 문화의 생산과 수출을 주도 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산업의 인프라를 가구디자인에 결합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과 디지털문화에 대응하는 가구디자인의 기능적, 형태적,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디자인 산업은 첨단 IT기술과 디지털기술이 접목하여 미래 글로벌 마켓의 새로운 가구디자인 시장을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

14) Ubiquitous computing (ubicom) integrates computation into the environment, rather than having computers which are distinct objects. Other terms for ubiquitous computing include pervasive computing, calm technology, things that think, everywhere, and more recently, pervasive Internet. Promoters of this idea hope that embedding computation into the environment and everyday objects would enable people to interact with information-processing devices more naturally and casually than they currently do, and in ways that suit whatever location or context they find themselves in.

15) Ashis Nandy(1937~) is a political psychologist and sociologist of science who works at the 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 in New Delhi, India. He has worked on cultures of knowledge, visions, and dialogue of civilizations.

### 5. 참고문헌

김삼대자, 2002. 한국의 목가구,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도록  
 김현아, 1999. 20세기말 서구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가구의 정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존 스토리,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최공호, 1996.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도서출판 재원  
 최공호, 2000. 한국 근대공예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카시와기 히로시, 2003. 디자인과 유토피아, 홍디자인  
 코디 최, 2006, 20세기 문화지형도, 안그라픽스  
 폴 케네디, 2004,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호미바바, 200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http://www.google.co.kr>  
<http://www.naver.com>  
<http://www.r20thcentury.com>  
<http://www.wikipedia.org>

### Membership Admissions Fee Information

This society is managed based on the admission fee of our members.  
 Please send us the 2006 admission fee to below address.

#### Furniture Society Membership Admission Fee Information

<i>President</i> Chairman President	100,000 won/ year
Vice Chairmen / Library Member / Company Director	50,000 won / year
Executive Director / General Director	30,000 won / year
Standard Member	10,000 won / year
Joining Admission Fee	10,000 won / year
Account No. <i>110-215-381100</i> 032901-04-061537 (Kookmin Bank)	
Account Holder: <i>Shinham</i> <del>Choi, Byung-Heon</del> <i>Chun, Su Kyung</i> (Korea Furniture Society)	